



## 부처님 마음 더 큰 메아리로 퍼지길...

산에 오르는 행위를 수행으로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자 산악인'이라고 부른다. 산에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산을 오르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자비의 마음을 담는 것은 등산(登山)이라는 행위의 위대성을 보여주기에도 충분하다.

6월 10일, 부산 범어사가 자리 잡은 금정산 기슭에 불자 산악인들이 모였다.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양촌동) 창립 10주년 기념 법회와 제10차 전국불교산악인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회원들이 찾아온 것이다.

오늘의 등산 코스는 금정산의 최고봉인 고당봉(해발 802m). 바위산이긴 하지만 산길이 험하지 않고, 금샘과 사적 제215호로 지정된 금정산성 등이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코스다. 부산불교산악회(회장 강갑균) 회원들은 일찌감치 등산로 곳곳에 자리 잡았다. 길 안내와 회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다.

오전 9시, 성남불교산악회(회장 김인환) 회원 40여 명이 등산을 시작했다. 성남불교산악회는 하루 전인 9일 저녁 성남을 출발해 10일 새벽 통도사에서 새벽 예불을 모신 뒤 바로 금정산 산행에 임했다. 기업 임원으로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김인환 회장(유한

김 벨리 이사는 "한 달에 한 번 산악인회 회원들과 등산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의 피로도 풀리는 것을 느낀다"고 말한다. 서로 손을 잡아주고 물을 나눠 마시기도 하고 흥겨운 노래를 불러주며 힘을 북돋우는 모습에서 회원들 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범어사를 출발한지 1시간 남짓 지났을 때 금정산성에 도착했다. 산성 누각에 걸린 플래카드와 시원한 약수가 회원들을 기다린다. 땀 흘린 후 마시는 물 한 모금은 그야말로 감로수(甘露水)다. 나무 등걸에 앉아 다리를 토닥이며 고당봉을 바라본다. "아휴, 아직 한참 남았잖아." 아직 까마득한 봉우리가 마음을 무겁게 했는지 한숨이 새어나온다. 그러자 한 회원이 다가와 웃으며 말한다. "산꼭대기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면 금방 지쳐요. 천천히 오르면서 나뭇잎도 만지고 계곡물에 손도 담그고 숨을 깊게 들이쉬면 '산에 왔구나' 하고 느끼죠. 그게 등산의 참 맛이에요."

말 한마디에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자 힘이 솟는다. 다시 산을 오른다. 산성까지 원만하던 산길이 금정산성을 기점으로 조금씩 가팔라진다. 발걸음은 더디지만 오히려 몸은 가볍다. 하지만 김순현(68) 할머니의 가방은 정상에 가까울수록 무거워진다.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물병이며 쓰레기를 주워서 가방에 담기 때문이다.

"버린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주워야지. 산에 오는 사람들이 산을 아껴야 더 오래 산을 볼 수 있잖아요."

오전 11시가 넘어가자 마장불교산악회, 원주불교산악회, 대경불교산악회를 비롯해 전국 지역 산악회 회원들이 산행을 시작했다. 고당봉에 올라 금샘을 거쳐 다시 범어사로 돌아오기까지 누구 한 명 다치지 않고 무사히 산행이 끝났다. 범어사 공양간에서 먹는 비빔밥

한 그릇에 산행의 피로가 풀린다.

오후 2시, 본행사인 제10차 전국불교 산악인대회가 시작됐다. 법회에는 전국불교산악인회 명예총재인 조계종 포교원장 혜홍 스님과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대회장 양촌동 총재,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부산불교신도회 홍병수 회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제주불교대학산악회와 밀양불교산악회, 대전중앙불교산악회가 새로 가입했다. 이로써 지역 단위산악회는 총 41개가 됐다. 또한 김춘식 사가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산악인회를 이끌어 오는데 노력해 온 강갑균(수석부총재) 지우하부

2000여 불자 산악인 금정산 등정 후 법회  
 제주·밀양·대전 새로 가입, 총 41개 단체  
 "생명 아끼는 산악인될 것" 발원문 낭독도

### '불교산악인회 10주년 기념법회' 현장



"산행(山行)이 곧 수행(修行)입니다." 6월 10일 부산 금정산에서 열린 제10차 전국불교산악인대회에 참가한 성남불교산악회 회원들이 금정산성에 도착해 활바웃을 터뜨렸다. (사진 맨 위) 산행을 하는 불자 산악인들과(사진 위) 범어사에서 열린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모습.

2006 대한민국 여성중심도 우수상품 선정(한국일보)  
 2006 베스트 마그토린 기법&디자인 선정(스포츠투 서울)  
 뛰어난 유행성인 및 상품특성

MASTERPIECE OF THE WELLBEING COLLECTION  
**마·그·토·린**

다가오는 5월 부모님과 은사님께 드리는 효도, 보은, 감사, 사랑의 선물을 마그토린 웰빙주얼리로 준비하세요  
 이제, 소중한 분께 건강을 먼저 선물하세요!

Magtorin Jewelry  
 마그토린 웰빙주얼리는 스테인리스 (또는 신주) 안쪽에 페라이트 자기장을 첨가하고 울리온이 생성되는 마그토린 실리코네드를 결합한 후 원적외선 에너지를 포획한 아이디어 퓨전 웰빙 제품으로 착용감이 좋고 디자인이 고급스러우며 코디하기가 쉽다.

MT 204T ₩86,000  
 MTB 207G ₩98,000  
 MT 203G ₩79,000  
 MTB 206T ₩98,000  
 MT 205G ₩86,000

제품 사이즈-남(여)-  
 S : 17.5cm(16.5cm)  
 M : 18.5cm(17.5cm)  
 L : 19.5cm(18.5cm)  
 주문시 사이즈 선택

제조 및 판매: 서원SNKO | 제품문의: 02-568-1117 | 국민은행: 443101-01-057676(예금주:최민경)